

美 “캐나다-인도 ‘외교 갈등’ 풀읍시다”

분리주의 시크교도 피살에 加·印 으르렁 외교관 맞추방·자국민 여행경보 맞발령 블링컨 두 나라 갈등 고조에 난감한 처지

캐나다에서 발생한 시크교도 피살 사건을 두고 캐나다와 인도의 외교적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인도에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캐나다의 조사에 협력할 것을 독려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CBS뉴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한 블링컨 국무장관은 시크교도 피살 사건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미국)의 관점에서 캐나다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인도가 이 조사에 대해 캐나다인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초국가적 탄압으로 보이는 어떤 사례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매우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그런 행위를 할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나라도 (실제) 행동에 옮기

지 않는 국제적 시스템이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 백악관이 이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지만 정부 고위 인사가 직접 인도를 향해 발언한 것은 블링컨 장관이 처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캐나다 동료들과 단순한 상의뿐만 아니라 조정까지 함께 해 논의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캐나다 주재 인도 외교관들의 대화가 포함된 사건 관련 정보를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동맹국이 수집해 캐나다에 제공했다는 캐나다 CBC 뉴스의 보도에 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영국·호주·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정보공유

동맹이다.

같은 자리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는 내가 말한 믿을 만한 주장을 몇 주 전에 인도와 공유했다”라며 인도 정부가 조사에 협력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보기관이 캐나다 정부에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는 인도 정부가 이번 사건의 배후라고 결론짓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익명의 관리들이 전했다. 다만 핵심 정보인 인도 외교관의 대화를 도청한 건 캐나다 관리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뤼도 총리는 6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한 시크교 사원에서 복면 괴한 2명에게 총탄을 맞고 숨진 하디프 싱 니자르 사건의 배후에 인도 정부 요원이 연루됐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캐나다 정부는 자국 주재 인도 외교관을 추방했고 인도 정부 역시 트뤼도 총리의 주장을 부인하며 자국 주재 캐나다 외교관을 맞추방했다.

양국은 상대국 내 자국민에게 여행경보



안토니 블링컨(왼쪽) 미국 국무장관이 캐나다의 시크교도 피살 사건 조사에 인도가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20일 블링컨 국무장관이 유엔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안보리 고위급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AP=연합뉴스)

도 발령한 상태다. 인도 정부는 2일부터 캐나다인에 대한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양국이 추진하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도 잠정 중단됐다.

미국으로서는 전통적 우방국가인 캐나다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는 계획의 핵심 국가인 인도 사이에서 난감한 처지에 놓인 셈이다.

NYT는 미 정보기관의 정보 제공이 사

실로 드러나면 미국이 양국 외교전의 멍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살해된 니자르는 인도계 캐나다인이었다. 인도 북부 펀자브 지역을 인도에서 분리해 시크교 국가 ‘칼리스탄’을 세우려는 분리주의 운동단체의 지도자였다. 인도 당국은 2020년 그를 테러와 살해 음모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김학형기자 hkhkim@skyedaily.com

글로벌 클래스



미국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에 배치된 K5와 동일한 모델. (나이트스코프)

‘스타워즈’ 드로이드 美 뉴욕 ‘로봇 경찰’로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드로이드(R2-D2)를 닮은 로봇이 미국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에 등장했다. 운용 주체는 뉴욕경찰(NYPD)이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NYPD는 전날 밤부터 미국의 로봇 제작사 나이트스코프의 K5 모델을 타임스퀘어역에서 시험 운용하기 시작했다.

이 로봇은 약 400파운드(약 181kg)의 무게와 약 5피트3인치(160cm) 높이의 피라미드 모양이며 표면에 NYPD 마크 등 경찰 상징물이 부착돼 있다.

아래에 달린 바퀴로 움직이며 상단에 달린 4개의 카메라로 주변 행인이나 거리 등의 모습을 영상으로 저장한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와 인권단체 등의 반발을 감안해 안전인식 기능을 넣지 않았고 소리도 저장하지 않는다.

나이트스코프에 따르면 K5는 “완전히 자율적인 야외 보안 로봇”이며 이미 공항·병원·쇼핑몰·공항·창고·카지노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K5의 임대 가격은 시간당 9달러(약 1만2000원)다.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최저임금(뉴욕주 15달러)에도 못 미치는 비용”이며 “(로봇 경찰은)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식사 시간도 없이 열심히 근무한다”고 설명했다.

타임스퀘어역에 배치된 로봇 경찰은 앞으로 2주 동안 타임스퀘어역의 지도 정보를 습득할 예정이다.

김학형기자 hkhkim@skyedaily.com

우크라, 나흘째 크림반도 공격... 러시아는 동남부 일대 공습

“러 고위 지휘관 숨지고 수십명 사상... 미사일 타격” “우크라이나군 도네츠크 등서 한 주간 3600명 손실” 반격

러시아에 반격을 퍼붓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일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나흘째 이어갔다. 러시아는 자포리자 등 남동부 전선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크림반도 도시인 세바스토폴의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시장은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또다시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AFP 통신이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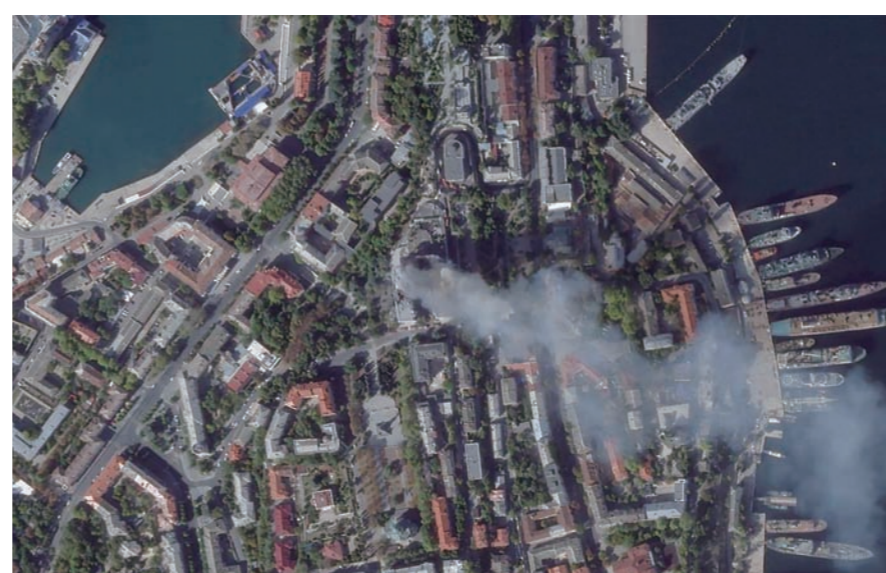
라즈보자예프 시장은 “러시아군이 요격 한 우크라이나군 미사일 파편이 세바스토폴 부두 인근에 떨어져 공습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크림반도 북부 지역에서도 이날 큰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

크림반도는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지역이다. 푸틴은 그동안 크림반도 병

합을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워왔다. 우크라이나군은 6월부터 러시아 점령지 탈환을 위한 반격을 본격화하면서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도 강화하고 있다.

20일 세바스토폴 인근 흑해함대 사령부를 공격했고 21일에는 크림반도 서부의 사키 공군기지를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했다.

특히 전날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를 정조준했다. 흑해함대 본부에 12차례 미사일 공격을 가해 러시아군의 대공미사일 시스템 4대와 포병부대에 타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AFP 통신은 이 공격으로 러시아 해군 고위 지휘관이 숨지는 등 사상자 수십명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에 화염이 치솟아 오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양측이 파악한 인명피해 현황은 차이가 크다. 러시아는 전날 흑해함대 본부 피습으로 군인 1명이 사망했다고 했다가 곧바로 사망이 아니라 실종이라고 정정했다.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나흘째 크림반도 일대를 공습하는 사이 러시아는 동남부 등지에 공격을 집중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러시아군이 동남

부 자포리자주와 동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 자폭 드론 15대를 발사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14대는 격추됐다는 우크라이나군의 주장이다.

자포리자주의 우크라이나 측 행정책임자 유리 말라슈코는 “어제 러시아가 마을 27곳에 86차례의 공습을 했고 82세 민간인 1명이 포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남부 헤르손주의 올렉산드르 프로쿠딘 주지사는 “하루 새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최소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면서 “러시아는 드니프로강을 따라 포탄 25발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은 지난 한 주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동남부 자포리자주-남부 헤르손주-동북부 루히안스크 등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3600명의 병력을 잃었고 탱크와 전투용 차량·로켓 시스템 등도 다수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박병현기자 bhpark@skyedaily.com

KMAC 한국능률협회컨설팅

Innovative Knowledge Platformer

최고의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KMAC가 있습니다

컨설팅
우리의 과제를 누구에게 맡길까?

리서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잘하는 곳이 어디지?

진단평가
지금 우리 회사의 수준은 어디일까?

인재혁신
인재혁신에 대한 고민 어디에 물어볼까?

기업가치혁신 | 고객가치혁신 | 공공혁신 | 진단평가 | 리서치 | 디지털·데이터 | 에너지·환경 | ESG | 글로벌사업 | 대학혁신 | 스마트교육 | 글로벌연수 | 미디어